2가지가 있다. 환경 규제 철폐, FDI(해외직접투자)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이율배반
청산강철 관련 박명재 의원 6월 12일 발표자료(협회 사이트) 참고
(포스코 이윤사장 시절 STS일본 극복, 이후 기술원가 경쟁력?)

꼭지명 : 월요 철강 시황 리포트 (5) (19.8.19)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포스코의 슬기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 철강재…中 오퍼 10~15달러 급락,
국내 포스코 및 유통시장 호가 인상, 철근 채널 약세 속 추가 하락 관측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업계 60개사 상반기 경영실적 확정 매출 1% 증가 반면 영업이익 급감(-15.4%)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인사(2019. 8. 19 부), 철강세라믹과장 김현철 서기관
5. 금주의 자료 : Z세대의 등장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 19.8.19)
2019년 2/4분기 주요 건설 통계 (출처 : 대한건설협회, 19.8.9)
유정용 강관 관련 미국과의 WTO 분쟁 관련 동향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워싱톤무역관, 19.8.13)
6. 철강과 인문학(4) : 철과 인간의 만남(2) (길고 긴 우연의 연속) 생활·사회구조 변화로 문명 발달시킨 주역

1. 주간 철강 시황 이슈 종합 : 포스코의 슬기로운 변화를 기대하며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극도로 우려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철강업체들의 경영실적이 집계됐다.

본지가 조사한 60개 상장 철강업체들의 상반기 경영실적은 우려하던 그대로였다. 매출은 37조원을 조금 넘어 전년 동기 대비 1% 정도가 늘어났지만 영업이익은 2조2930억원에 그쳐 무려 15.4%나 줄어들면서 전체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의 7.3%에 비해 또다시 1.2%p가 낮아졌다.

수익성을 좀 더 분석해 보면 전체 외형의 41%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10.2%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 전체 영업이익률을 그런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스코를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3.4% 수준으로 급락하고 만다.

특히 철강 2위사로 외형의 25.6%를 차지하는 현대제철(영업이익률 4.1%)까지 제외하면 58개 철강사들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2.8%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 2.8%의 영업이익률~~로는~~(은) 신규 투자 등이 어려워 기업의 지속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리점 등 유통가공 부문이 아닌 제조업체들의 경우에는 미래가 아니라 당장의 순이익 확보도 쉽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포스코의 10.2% 영업이익률은 사실 대단한 실적임에 틀림없다. 세계 1위 철강사인 아세로미탈마저도 올해 상반기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세계 주요 철강사들 대부분이 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피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5대 철강사 중 현대제철 4.1%, 동국제강 3.9%, 세아베스틸 2.5%, 동부제철은 적자가 계속됐다.

그만큼 철강사들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포스코가 지난해 상반기 11.9%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한 것은 엄청난 실적이라고 칭찬받아도 좋은 일임에 분명하다.

<참고기사클릭> [이슈분석] 포스코 이익률 10.2% vs 업계평균 3.4% '생태계 균열'

<참고기사클릭> [DB뉴스] 철강사 3분의2 이익률 하락...포스코 웃도는 기업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사들의 걱정은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하반기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확실해 보이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수출 환경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경제 전쟁 등 무역환경은 악화일로에 있다. 국내에서도 환경 등 각종 규제 강화로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전반의 위축에 따른 철강 수요 ~~감소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감소는 거의 위협적이라고 예상된다.)

무엇보다 철강사들의 경우 철광석 등 원료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야 하나 이마저 여러 이유로 쉽지 않다는 사실이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실제로 포스코 등 주요 철강사들은 상반기 내내 제품 가격 인상을 시도했으나 시장의 강력한 반발로 제대로 반영을 시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반기 들어서면서 특히 8월 이후 포스코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포스코의 가격 조정과 관련해 곱지 않은 시선이 더욱 증폭되는 모습이다.

물론 포스코가 굳건히 버텨주어야만 국내 철강산업 전체가 지탱해 나갈 수 있다는 구조적인 설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상당수 철강사들이 포스코 제품을 소재로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타 철강사들도 직간접적으로 포스코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 평균 2% 대의 영업이익률 속에 포스코만 10%가 넘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더 생각을 요구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포스코의 그동안 피나는 원가 절감 노력,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적절한 투자 등 대응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주어야 할 부문임에 틀림없다. 또한 대부분 불만의 근간에는 다른 철강사들은 모두 힘든데 포스코만 잘 나간다는 상대적 박탈감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작금의 포스코 가격 정책, 나아가 회사 전반의 모든 활동들이 자사 이익 추구에 집중돼 있다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일이다.

▼수입대응재 명목의 저가 공급 제품들이 오히려 수입재를 쓰는 수요가들을 위한 것이 아닌지 ▼포스코 제품을 고집하는 애(愛)포스코 업체를 오히려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지 ▼포스코 제품 애용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은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는지 ▼수출량 확보를 위한 저가 수출이 2차 제품의 국내 수입이라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최근 열연강판 가격 3만원, 냉연판재류 2만원 인상이라는 고육지책이 포스코 제품 구매자들을 중국산으로 돌리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등 심사숙고해야 일들임에 분명하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더욱 강화하고 있는 최저가 입찰제도 이미 그 폐해가 충분히 지적되고 있는 일인 만큼 보다 더 보완하고 세분화하는 등 구매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지금까지 포스코를 세계 5대 철강사로 키워오고, 세계 최고 경쟁력을 보유한 철강사로 만들어온 포스코인들의 노력은 충분히 치하를 받을 일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포스코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미래에 대한 책임은 지금의 포스코인들에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포스코의 경쟁력은 나아가 우리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임에 틀림없다. 포스코의 미래에 대응한 슬기로운 변화를(대응을) 기대해 본다.

2. 주간 철강 시황 분석 종합

철스크랩…국내외 단기 강세에서 하락조정 국면 진입
철광석…90달러까지 하락, 하락폭 둔화, 안정화 예상
철강재…中 오퍼 10~15달러 급락
국내 포스코 및 유통시장 호가 인상, 철근 채널 약세 속 추가 하락 관측
중국 주간 시황…내수 가격 6월 이후 첫 상승세, 재고는 감소로 전환

(시황 변동 요인 및 이슈 분석)

◆ 철스크랩 : 국내외 단기 강세에서 하락조정 국면 진입 관측

1. 미국 컴포짓 가격 12일 기준 평균 248.3달러 : 전주 대비 20달러 급등
   - 앞서 가격 상승이 반영된 후행 지표.

- 19일 시작 주간 하락 관측
→ 터키 철근 등 제품 및 철스크랩 수입 동반약세
→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약세. 밀(mill)들의 재고 확보 이후 조정장으로 평가.
  * 시장 모멘텀 자체가 약화된 차원은 아니라는 분석도 유
→ 한국 시장의 수입 관망세 : 8월 설비보수 집중 및 앞서 확보한 재고

2. 일본 3개 지역(관동 관서 중부) 8월 2주차 H2 평균 가격 2만4400엔. 2주 연속 보합세
- 관동 2만5300엔 , 중부 2만2700엔, 관서 2만5300엔
- 일본 내수 부진/동남아 시장 약세...H2 수출 가격 FOB 톤당 2만7000엔 추이
- 달러와 함께 엔화도 강세
→ 미국과 함께 일본 수출 가격도 약세 조정국면을 거칠 것으로 관측

3. 동국제강 대형모선 철스크랩 계약 소식
- HMS No.1&2(80:20) CFR 톤당 300~310달러 사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 정확한 가격은 파악되지 않음.
- 기존 오퍼 가격은 310~315달러(동남아는 320달러 이상), 동국제강 계약 가격은 하락조정된 것으로 평가.

4. 영남지역 특별구매 이후 배차량 급증
- 특별구매는 한국특수형강을 시작으로 대한제강 한국철강이 참여. 13일~16일
- 인상폭은 2만원. 철스크랩 업계에선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물량방출 결정
- 방통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역으로 내려가는 배차량이 평소 2배 이상 늘었음
- 한국특수형강은 16일 입고량 과다로 입고 마감을 오후 2시30분으로 제한
- 한국철강은 16일 하루 5000톤 이상 입고된 것으로 파악

5. 국내 가격 이번 주 하락기조 강화 관측
- 철스크랩 업체들은 이번 특별구매 2만원에 만족하는 분위기
→ 대한제강은 19일부터 28일까지 보수
→ 가격 상승제한 인식. 철스크랩 업체들의 자금압박 및 수익성 저하 등 부담이 배경
→ 현대제철 동국제강은 앞서 재고확보 및 여름철 보수 등으로 인상기조 '관망'
→ 해외 시세가 하락조정국면으로 진행되는 상황. 국내 제강사들의 인하 시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 YK스틸 사망사고에 따른 가동중단은 이번 주 중 정상가동으로 전환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

글로벌 철스크랩 시세 참고

GLOBAL WEEKLY SCRAP WRAP			
	Price today ($)	Price last week ($)	Value change week on week
Steel scrap HMS 1&2 (80:20 mix) North Europe origin, cfr Turkey, $/tonne	277.98	283.17	▼5.19
Steel scrap HMS 1&2 (80:20 mix) US origin, cfrTurkey, $/tonne	285.16	290.35	▼5.19
Steel scrap HMS 1&2 (80:20 mix) export, fob main port UK, $/tonne	266.50	266.50	0.00
Steel scrap HMS 1&2 (80:20), export index, fob New York, $/tonne	269.00	269.00	0.00
Steel scrap HMS 1&2 (80:20 mix) US material import, cfr main port Taiwan, $/tonne	273.50	280.00	▼6.50
Steel scrap, shredded, index, import, cfr Nhava Sheva, India, $/tonne	300.67	305.17	▼4.50
Steel scrap, shredded, import, cfr delivered Turkish port, $/tonne	294.50	294.50	0.00
Steel scrap HMS 1&2 (80:20), cfr Vietnam, $/tonne	312.50	312.50	0.00
All prices and values in US dollars ($)			Source: Fastmarkets

◆ 철광석 : 90달러까지 하락. 하락폭 둔화. 안정화 예상

1. 철광석(Fe 62%) 가격 : 16일 중국 수입 CFR 톤당 90.0달러
   - 전주 9일 대비 1.1%(1달러) 하락, 최저 89.0달러(13일/15일)까지 하락
   - 7월 말 대비 25.0%(30.0달러) 급락

→ 중국의 생산량 2개월 연속 감소. 5월 8909만톤서 6월과 7월 8753만톤, 8522만 톤
→ 철강재 가격하락 및 여름철 비수기 수요부진, 중국 재고 증가세 지속 등 배경
→ 브라질 발레의 공급 정상화, 7월 수출 3430만톤 전월대비 16.6% 증가
→ 호주 리오틴토 7월과 8월 운송량 축소. 8월 중순이후 타이트한 공급 완화

※ 중국의 감산
- 당산시 7월 말까지 감산. 7월23일 이후로는 소결공장 20~50% 감산에서 50~70%까지 강화, 26~28일은 생산 중단 명령
- 현지 소식에 따르면 중국 중소 밀(mill)들은 8월 손실규모가 커지면서 감산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감산지역은 산시(Shanxi), 산시(Shaanxi), 사천, 산동, 푸젠 등 5개 지역으로, 이곳 제철소들은 8월13일부터 감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됨
- 10월1일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 행사. 겨울철감산에 앞서 조기 감산이 실시될 것으로 관측

2. 중국 수입 철광석 재고 낮은 수준 지속
   - 마이스틸 집계 기준 16일 수입 철광석 재고 1억1600만톤 : 작년 8월 1억5300만톤, 전월 1억1600만톤 동일

→ 현재 중국 내 감산기조 속에서 미중 관계 불확실성 등에 따른 철강시장 약세기조는 철광석 가격에 부정적으로 영향. * 중국 제철소의 철광석 재고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

3. 기타
- 글로벌 타이트한 공급 완화에 더해 위안화 강세로 중국 수요는 일시적으로 감소
- 피치솔루션 관측 : 2019년~2020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철강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특히 2020년은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이 계속되면서 중국 수요가 강세를 유지,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측. 다만 철광석 가격은 공급 완화 및 증가를 배경으로 2020년 이후 연평균 80달러에서 57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 철강재

中 오퍼 10~15달러 급락

국내 포스코 및 유통시장 호가 인상, 철근 앵글 채널 약세 속 추가 하락 관측

1. 중국의 철강재 오퍼 가격 급락
- 열연 오퍼 가격 급락

→ 본계 : CFR 500달러 10월 적. 전주대비 15달러 하락
→ 일조 : CFR 495~496달러 9월말~10월초 적
→ 사강 : CFR 485~489달러 9월말~10월초 적 *물량이 많지 않았음
→ 연산 : CFR 502달러 9월말~10월초 적.
→ 승덕 : CFR 495달러 10월초중순 적
→ 당산 등 기타 : CFR 480달러 10월말 적 (안산, 당산, 마안산 중), 실제 성약
** 본계강철 연산강철은 5~10달러 네고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짐
** 당산 등 기타 밀 오퍼는 역포지션 물량으로, 중국 에이전트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내놓은 물량으로 파악됨

2. 후판
- 당산 : CFR 505달러 10월중하순 적
- 잉커우/푸양 : 공식오퍼 없음. 비드 시 CFR 515달러 가능할 것으로 예상. 10월 적

3. 철근
- 사강 : 10.0mm CFR 510달러. 13mm 이상 500달러/500강종 10mm +20불, 기타 +10달러
  600강종 생산하지 않음. 공장 최종 확인조건
- 용강(정식오퍼 없이 비드로 진행) : 10mm CFR 510달러. 13~32mm 500달러.

Extra USD10/MT for SD500 based on SD400
Extra USD30/MT for SD600 based on SD400
Shipment: on or before 10th Oct aiming earlier

4. '포스코버전' 가격고시 열연대응재 1개월 2차례
- 포스코는 7월부터 열연 수입대응재에 대해 월 2차례 가격 통보
- 2주 오퍼 평균 가격을 고려해 책정 판매점에 통보
- 7월부터 3차례 가격고시. 65만원→63만원→8월 현재 65만원
- 이번 주 새로운 가격고시 통보시점. 중국 오퍼 가격이 최소 10달러 이상 큰 폭 하락한 상태여서 포스코의 결정에 관심 집중.

* 판매점들은 인하가 합리적이라고 하나 포스코가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 최소 동결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5. 포스코 정품 열연 가격 인상 2만원
- 지난주 판매점에 정품 열연 베이스 가격을 71만원으로 2만원 높일 것이라 통보. 9월 투입분. 대응재는 65만원에서 <4번항>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

6. 포스코판매점 열연호가 2만원 인상. 1만원 반영
- 포스코 판매점 지난주부터 열연 호가 2만원 인상
- 현재 대응재 69만원. 정품 71만원으로 호가를 올림
- 실제 반영은 1만원 정도에 그침. 대응재 68만원/정품 70만원

→ 정품 주문은 거의 넣지 않고 있음. 가격도 의미가 없다는 지적.
→ 판매점들은 65만원에 공급받아 69만원에 팔면 남는 게 없다는 계산.

7. 철근
- 유통가격 : 국산 67~67.5만원/일본산 64.5~65만원/중국 및 대만산 63~63.5만원
- 철근은 국산 수입산 모두 약세장. 국산은 철스크랩 가격향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 철스크랩은 앞으로 하락조정장이 될 가능성 높음.
- 수입산 철근은 환율급등으로 수입업체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따라서 추가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하지만 일부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추가 인하로 시장에 대응하고 있음

8. 앵글 채널
- 중국 빌릿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약세로 영향을 받음.
- 지난주 성차이 오퍼 앵글 478달러. 잔넬 488달러 전주대비 14달러 하락

→ 앵글 채널 국산 가격은 76~77만원 동일. 수입산은 62~63(앵글)/64~65(잔넬)

9. 형강
- 유통가격 : 국산 83~84만원/포스코베트남 80~81만원/바레인 및 일본 78~79만원/중국산 75~76만원

◆ 중국 주간 시황 : 내수 가격 6월 이후 첫 상승세. 재고는 감소로 전환.

<평가> 수요자 측면에서 철강 가격 바닥인식에 따른 구매재개. 공급자 측면에서 재고증가에 따른 투매가 공존. 가을철 성수기를 대비한 수요개선 가능성이 제기됨.

1. 철강 내수 가격 6월 이후 첫 반등세
- 16일 기준 : 열연 3800위안 철근 3720위안 전주대비 60위안 20위안 상승

→ 열연은 12일부터, 철근은 13일부터 상승세 지속
→ 유통재고는 6월 중순 이후 첫 감소 기록

2. 유통재고
- 16일 기준 철근 재고 918만톤 전주대비 6만톤 감소. 열연 254만톤 7만톤 감소

→ 6월 중순 이후 9주 연속 증가한 재고는 이번에 처음으로 감소.
* 선재 제외, 냉연은 7월 중순부터 5주 연속 감소함

3. 중국 철강수요 모멘텀은 유지 의견 (국가통계국)
- 1~7월 FAI 고정자산투자(FAI) 34조8800억 위안(4조9600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5.7% 증가.
- 인프라건설 3.8% 증가. 철도운송 12.7% 증가. 부동산 10.6%

→ 평가 : 1~7월 FAI 시장예상치 5.9%를 하회. 1~6월 증가율보다 둔화. 하지만 전체적으로 견조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철강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평가. 피치솔루션은 2020년 인프라 투자 등 경기부양책에 따라 철강수요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함.

※ LME 비철금속 주요뉴스

소위 'R의 공포'를 몰고 왔던 美 국채금리가 2年物과 10년물 간의 역전이 다시 정상화되고 30년물도 2%대를 회복하는 등 잠잠해지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은 것("무역전쟁이 오래 가지 않을 것")도 시장 공포 심리를 누그러뜨리는 데에 도움이 된 듯. 다만, 오늘 발표된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들은 어제와 달리 대체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시각 03:00 현재 미국의 주요 주식시장들은 1.5% 내외의 오름폭을 기록 중.

16일 LME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비철시장 수요를 어느 정도 잠식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는 가운데, 일부 품목들은 소폭 반등에 나서는 흐름. Copper는 상하폭 매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양새. 지난 사흘간에 걸쳐 LME 등록창고의 Copper 재고가 22% 급증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 Aluminum은 장중 한때 $1,800대 윗선에 올라서기도 하는 등 유독 강세를 보였으나, 장 후반에 재차 매물이 유입되면서 전일 대비 0.4% 상승 마감에 그쳐. 한편, 오늘 상해에서 거래되는 Nickel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3.7% 상승폭을 보였는데 Sucden Financual社 시황을 인용하면, "최근의 매크로 요인들, 무역전쟁 불확실성, 홍콩 상황 등을 감안하면 수요 측면은 확실히 마이너스 쪽이겠으나, Nickel에서 보듯 가격지지는 공급 측 충격으로부터 올 수 있어."

Gold는 주말을 앞둔 이익실현 매물, 주식시장과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전일 대비 약 0.5% 하락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 그럼에도 주간 단위로는 3週 연속 상승이고, 이번 달 들어서만 상승폭이 $100을 상회하고 있어. 다음 주 열릴 美 연준의 연례 심포지엄은 금리 향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봐야할 이벤트.

주요뉴스

中 7月 전기동 생산 4.8% 증가; 알루미나 생산 12月 이후 최저규모 (Reuters)
현지 통계 당국에 따르면, 중국의 7月 전기동(refined copper)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한 801,000톤으로 집계됐고, 알루미나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3% 감소한 6.22M톤을 기록해 지난 12월 이후 최저규모로 나타나. 한편, 아연과 납의 경우에는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7.4%와 13.2% 증가한 512,000톤과 472,000톤으로 집계.

比 최대 高등급 니켈광산 셧다운 전망 (Reuters)
당국 발표에 따르면, 필리핀 최대 高등급 니켈광 수출업체인 SR Languyan Mining社가 국토 최남단 타위타위 지역 프로젝트의 광석 매장량이 거의 고갈됨에 따라 2019年 하반기 중에 셧다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이에 따라 필리핀의 중국向 니켈광 수출이 月 30만톤~40만톤 가량 줄어들게 될 것으로 분석

中상해기화교역소 주간 전기동 재고 4.1% 증가 (Reuters)
거래소 집계에 따르면, 중국상해기화교역소(SHFE)의 주간 전기동 재고가 전주 대비 4.1% 증가한 16만2,830톤으로 나타났다고.
한편, 알루미늄/아연/납/니켈/주석의 경우에는 각각 전주 대비 -1%/-7%/-4.1%/+0.4%/-5.5% 증가하거나 감소한 387,663톤/73,857톤/36,609톤/29,009톤/5,729톤으로 집계

3. 업계 주요 이슈 포커스

◆ 철강업계 60개사 상반기 경영실적 확정

* 철강부문 맞비교 위해 개별실적을 기준

<참고표 링크> http://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

1. 매출 37조389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3654억 원) 증가
2. 영업이익 2조2930억 원. 15.4%(4171억 원) 급감
3. 영업이익률 평균 6.1%...포스코 10.2% vs 업계 평균 3.3%

* 업계 전반 포스코 반감 분위기 고조. 포스코 소재 사용하는 기업들의 실적추락. 공급과잉을 떠나 포스코가 지나치게 이익중심으로 국내 고객사와 관계를 하고 있다는 지적. 열연의 경우 끊임없는 쟁점이 되고 있음. 2분기 이후로는 중국 및 일본산 가격은 낮게 형성. 중국의 공급증가(과잉으로 전환), 베트남 및 인도의 공급증가 등으로 '탈포스코' 기조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포스코 담당 실무진들의 보신주의도 업계의 불만사항으로 깊이 자리 잡음.

4. 매출 감소 29개사(48%)/영업이익 40개사(67%)
* 적자가 지속되거나 적자로 전환된 곳은 8개사 : 동부제철, 한국특수형강, 태웅, 한일철강, 삼강엠엔티, 현진소재, 미주제강, 코센

5. 매출과 이익을 모두 늘린 기업은 10개사
* 환영철강공업, 고려제강. TCC스틸, 경남스틸, 원일특강, 삼현철강, 영흥철강, 하이스틸, 성광벤드, 디씨엠,

6. 매출만 늘린 곳 20개사
* 현대제철, 동부제철(적자지속), 현대비앤지스틸, 세아특수강, 한국특수형강(적자전환), 태웅(적자지속), DSR제강, 한일철강, 문배철강, 태광, 동양에스텍, 태플렉스, 동일제강, 황금에스티, 삼강엠엔티(적자지속). 현진소재(적자지속), 대동스틸, 신화실업, 미주제강(적자지속), 유에스티

7. 매출감소 불구 영업이익 증가...수익성 개선 9개사
* 휴스틸, 금강철강, 동국산업, 대한제강(흑자전환), 쎄니트, 동일금속, 동양철관(흑자전환), 동국제강, 한국선재

4. 업계/수요/경제 주요 뉴스

1) 업계 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인사(2019. 8. 19 부), 철강세라믹과장 김현철 서기관 (현 대통령 비서실)

통상정책총괄과장 최진혁 서기관 (현 철강세라믹과장)

- 환경부 “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적은 양이 아니며, 미국도 불투명도를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최정우 포스코 회장 상반기 보수 8억1500만원, 장인화 사장 6억1500만원, 김용환 현대제철 부회장 8억2500만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2억3800만원, 장세욱 부회장 10억300만원
- 인천 동구지역 철강업체 3사 오염물질 방지시설 노후화 심각
- 현대제철、동국제강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베트남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요건 검토
- 일본 철강 수출규제, 듀플렉스 STS·마레이징강 소재분야 통제품목 분류
-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12월부터 1년간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쿼터를 부과
- 조업정지 20일, ‘석포제련소’ 1심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2) 수요/연관 뉴스

- 삼성중공업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2255억원 규모의 LNG운반선 1척 수주
- 현대중공업 2년 만에 기술연수생 모집...현장 인력 수요 충당
- 정부, 건설업 활력 키운다…하반기 SOC사업 16조 조기집행7월까지 자동차 수출액 255억1000만 달러, 전년대비 8.9% 증가, 친환경차 6분기 연속 증가세
- 7월 국내 자동차 전월대비 생산 17.4%, 수출 11.6% 증가, 내수 2.4% 감소
- 韓 조선사, 7월 전세계 선박 수주량 1위...석달 연속 1위
- 성동조선 '연말까지 4차 매각' 조건부 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 세진重, 현대미포조선과 LNG 카고탱크 공급계약...LNG 설비공급 시장 본격 진입대우건설, 상반기 신규수주 6조3814억원 기록...목표치 60% 달성
- 발전용LNG 개별요금제 강행 전력시장 혼선...20년 가동 노후 LNG가 신규석탄 급전순위 앞질러
- 인도, 1분기 자동차 판매 18년 만에 최저 18.4% 감소
- 현대중공업, 1150억 규모 그리스 원유운반선 옵션물량 1척 수주

3) 경제 뉴스

- 16일 환율 마감 : 원/달러 1210.8원 (전일 대비↓1.9원), 원/100엔 1140.76원(↑1.00원)
- 한국 6월말 기준 전세계 27개국에서 총 200건의 수입규제…철강 상반기 신규 8건, 전체 95건
- 상반기 10대 그룹 상장사 직원 작년 말 대비 7116명(1.1%) 증가
- 美 다음 달 중국에 추가관세 부과 시 중국 제품 전체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1.5%
- 산업통산자원부, 조선산업 부품 기자재 업체에 연구개발(R&D) 비용 60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구성, 대한상의 5층(전화 1670-7072).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 및 피해 지원 목적
- 주요 경제지표 (8. 16. 17시30분 현재, 자료 : 기획재정부)

[환율]	‘17말	‘18말	‘19.7말	8.13	8.14	8.16	전일비	18말비
₩/U$	1,070.50	1,115.70	1,183.10	1,222.20	1,212.70	1,210.80	△0.16	8.52
선물환(NDF,1월물)	1,070.00	1,114.90	1,181.80	1,221.30	1,211.90	1,210.20	△0.14	8.55
₩/CNY	163.9	162.79	171.8	172.94	172.88	171.95	△0.54	5.63
₩/Y100	949.28	1,008.86	1,090.21	1,161.12	1,139.76	1,140.76	0.09	13.07
Y/U$	112.77	110.59	108.52	105.26	106.4	106.14	△0.24	△4.02
U$/EUR	1.1927	1.1455	1.1157	1.1197	1.1165	1.1102	△0.56	△3.08
CNY/U$	6.5426	6.8522	6.8859	7.0653	7.0188	7.0385	0.28	2.72

* ‘18년 평균 환율: (₩/U$) 1100.6원, (₩/￥100) 992.6원
* ‘19년 평균 환율(’19.1.1~현재): (₩/U$) 1155.7원, (₩/￥100) 1056.7원, 3시 30분 기준

[유가]	‘17말	‘18말	‘19.7말	8.12	8.13	8.14	전일비	18말비
Dubai ($/배럴)	64.33	52.86	64.57	56.83	57.76	58.33	0.99%	10.35%

WTI 선물 ($/배럴)	60.42	45.33	58.58	54.93	57.1	54.47	△4.61%	20.16%

* '18년 평균 유가: (Dubai) 69.66$, (WTI 선물) 64.89$
* '19년 평균 유가('19.1.1~현재) (Dubai): 64.83$, (WTI 선물): 57.22$
* 8.9, 8.12 싱가포르 거래소 휴장으로 두바이유 8일수치 기재

[주가]	'17말	'18말	'19.7말	8.13	8.14	8.16	전일비	18말비
KOSPI	2,467.49	2,041.04	2,024.55	1,925.83	1,938.37	1,927.17	△0.58%	△5.58%
거래대금 (억원, 일평균)	42,744	41,207	38,774	39,977	43,402	50,764	16.96%	-
KOSDAQ	798.42	675.65	630.18	590.75	597.15	591.57	△0.93%	△12.44%
외국인순매수 (억원)	1,409	2,730	△212	△2,450	△1,158	△1,055	△9	-

* 기간중: '17말('17.1.1~12.31), '18말('18.1.1~12.31) 기타 당일, 16시 기준 잠정치

5. 금주의 자료

1) Z세대의 등장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 (출처 : 대한상의 브리프, 19.8.19)

- '최근 사회 진출과 함께 새로운 소비 주체로 등장한 Z세대(1995년 이후 출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
- 대한상공회의소의 대한상의 브리프 103호(2019. 8. 19)는 Z세대의 특징과 기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봄

*. 바로가기 : http://www.korcham.net/new_pdf/target/제103호-브리프(Z세대의%20등장과%20기업에%20주는%20시사점).pdf

2) 2019년 2/4분기 주요 건설 통계 (출처 : 대한건설협회, 19.8.9)

- 대한건설협회는 8월 9일, 2019년 2/4분기 기준 주요 건설통계를 발표.

*. 바로가기 : file:///C:/Users/win10/Downloads/붙임_2019.2분기%20주요%20건설통계(최종)%20(2).pdf

3) 유정용 강관 관련 미국과의 WTO 분쟁 관련 동향 (출처 : 한국무역협회 워싱톤무역관, 19.8.13)

- 2014년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최대 15.8%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은 WTO협정 위반으로 제소했음

- 2017년 11월 WTO는 한국 기업의 이익률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익률을 기준으로 반덤핑 관세를 산정한 것이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음.

- 한국 정부는 이행기간인 지난 7월 12일이 지나도록 미 정부가 반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아 연간 3억5천만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추후 이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할 관세 및 대상 품목을 발표할 예정임.

*. 바로가기 :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6776&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Name=&searchItemCode=&page=1&row=10

6. 철강과 인문학(5) : 철과 인간의 만남(2) 생활·사회구조 변화로 문명 발달시킨 주역

지난 회에 인간과 철의 조우(遭遇)를 '채광착오설', '산불설', '운석설' 3가지로 설명했다. 인류 문명은 철과 만난 후 극적으로 발전하게 됐는데 그 근간에는 최초의 금속소재인 동(銅)과 청동(靑銅)이 존재했다.

특히 청동은 동보다 강하면서 주조(鑄造)하기도 쉬워 급속히 확산되면서 신석기 시대 이후 마땅히 나와야 할 동기(銅器) 시대를 건너뛰게 만든 장본인이다. 인간은 청동으로 새로운 무기, 농기구, 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장식물 등을 만들어냈다.

청동기는 곧잘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다. 철은 토기에서 청동기까지 오랜 기간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있었기에 인간과 만날 수 있었다. 특히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황하 문명 등 모두 청동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인류의 4대 문명에서도 철기는 발견된다. 바로 운철이다.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그 주체는 수메르인이다. 수메르인은 기원전 3500년 경에 모습을 드러냈고 약 1500년 동안 존속했다.

수메르인은 인류 문명의 선구자다. 그들의 쐐기 모양 설형문자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수메르인이 살았던 시대는 청동기 시대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메르어 중에 '철'을 뜻하는 단어가 있다. '안바르'라고 하는데 '하늘'과 '불'을 의미하는 설형문자로 이뤄져있다.

결론적으로 '안바르'는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는 의미로 수메르인이 철을 알기는 했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운철밖에 몰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수메르인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철을 가공하게 됐고 운철이 돌보다 물러서 변형은 잘되는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다. 운철은 대기권을 통과하면서 산소가 타버려 이미 야철(제련)이 끝난 상태로 가공만 하면 원하는 물건을 만들 수 있었다.

당시 대장장이가 운철로 만든 물건들 중 일부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다.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도 기원전 3500년경 운철로 만든 투구, 기원 2000년경에 만들어진 철 부적 등이 발굴되었다. 크레타섬, 인도, 중국 등 인류가 문명을 일군 지역에서도 대부분 철기가 발견되는 이유다.

그러나 운철은 인류를 바로 철기 시대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원한다고 해서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철을 가공하며 철에 대한 경험과 기초지식을 습득하였을 것이고 직접 생산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만들었을 것이다.

토기를 만들다가 동(구리)을 발견했듯이 인간은 청동기를 만들다가 철과 마주친 것이다.

동과 주석 광석을 가마에 넣고 온도를 충분히 높이면 두 광석이 녹으면서 섞여 청동이 흘러나오게 된다. 그런데 가마 바닥을 청소하던 중 녹다 만 것 같은 고체덩어리를 발견했다.

(금속의 용융점) (℃)

철	1538
구리	1083
금	1063
은	960
알루미늄	660
아연	420
주석	232

이것이 바로 철이다. 철광석(산화철)이 구리와 주석 광석에 섞여 있다가 가마 온도가 평소(1100℃ 내외)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철광석이 어느 정도 환원된(산소가 제거된) 철 덩어리가 만들어졌다. 철의 용융점은 약 1538℃라 당시 가마의 온도에서는 철광석 자체를 녹일 수 없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온도에서 녹다 만 덩어리 상태로 철이 일부 제련된 상태로 발견된 것이리라.

이 철 덩어리를 대장장이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단야(鍛冶)하는 과정에서 청동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청동보다 무른데 오히려 질기다는 사실을…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운철(隕鐵)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간이 철을 스스로 발견하고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풍부한 매장량의 철은 무기, 장신구뿐만 아니라 화폐, 농기구, 그릇 등 생활용품의 재료까지 두루 쓰였다. 철을 사용하면서 인류의 생활은 광범위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었고 자연스럽게 지배층이 형성됐다.

낫, 호미 등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농업기술이 발달하여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 한 사람이 먹고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분량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인구가 크게 늘었고 집단 규모도 점점 커졌다. 지금까지 그냥 죽여야 했던 전쟁 포로를 노예로 부리게 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정치, 종료(교), 군사 등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잉여 생산은 생산하지 않는 소비 도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정복 전쟁을 통해 군장 세력이 통합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군장 세력이 왕권 하의 귀족 혹은 관료로 편입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후에 신분제로 연결된다. 청동제 무기를 쓰는 부족이나 국가가 철제 무기 국가에 통합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고대국가 형성과 나아가 제국으로 발전하는 근간에 철기가 존재한 것이다.

이렇듯 철의 발견과 사용은 단순한 도구의 변화를 넘어서서 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자. 생활, 사회구조까지 변하게, 발전하게 만든 주역이었다.